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Child's Self-Esteem : The Mediational Role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by Child's Gender

최형성(Hyung Sung Choe)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ild's self-esteem by the mediational role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its relations to perceived social support, parenting behavior, and stress, and to child's temperament and gender. Participants were 403 Korean children (188 boys, 215 girls) and their mothers living in Seou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boys and girls and their mothers indicated that parenting self-efficac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s including Warmth-Acceptance and Rejection-Restriction. In these models, parenting self-efficacy related to child's self-esteem through parenting behavior. Child's temperament related to self-esteem directly in three parenting behavior models. In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parenting self-efficacy mediated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both boy's and girl's models, between child's temperament and self-esteem in only boy's model.

Key Words :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자존감(self-esteem),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아동의 성(child sex).

I. 서 론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Rosenberg, 1979)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특

히 아동기에 형성된 자존감은 성인이 된 이후의 인성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가치관과 행동,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아동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요인으

¹⁾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g Sung Cho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San 1-1, Gwaebop-dong, Sasang-gu, Busan 617-736, Korea
E-mail : hyungsung@silla.ac.kr

로 부모를 꼽는다(Brody, Flor, & Gibson, 1999).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Mondell & Tyler, 1981).

양육행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최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양육효능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Bandura(1982, 1997)의 자아효능감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2).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아효능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과제 완수를 위한 행동 유발에 차이가 있다(Bandura, 1997). 양육효능감 역시 같은 양육 능력을 소유한 부모일지라도 양육효능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바람직한 양육행동 수행에 차이를 유발한다(Coleman & Karraker, 1997; 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Shumow & Lomax, 2002).

양육효능감은 양육의 제 변인들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제 변인들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우울이나, 가난, 아동의 기질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Coleman & Karraker, 1997), 사회적 지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Teti & Gelfand, 1991),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Leerkes & Crokenberg, 2002), 스트레스 사건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가정에서의 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Machida, Talyor, & Kim, 2002),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Cutrona & Troutman, 1986),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사회적인 지원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Donovan & Leavitt, 1985)을 매개한다. 양육효능감의 이와 같은 매개적 역할에 대한 연구

는 양육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양육을 통해 바람직한 아동발달을 꾀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도 기여할 것이다.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을 예측케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Desjardin, 2003; Gondoli & Silverberg, 1997;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Sanders & Woolley, 2005; Shumow & Lomax, 2002). 높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반응에 민감한 양육행동, 온정적 또는 비 처벌적 양육행동, 바람직한 아동 발달을 위한 지식 습득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동,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자녀를 교육하는 행동,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행동 등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학업에 관한 양육효능감의 경우도 자녀의 읽기와 수학 공부를 돕는 양육행동, 아동과 함께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 등을 예측케 한다(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Bassler, & Brissie, 1992;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반면 낮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학대, 통제적 또는 강압적인 양육행동, 바람직한 양육 기술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양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효능감의 특성들로 인해 양육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효능감 증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아동발달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Martin & Sanders, 2004; Webster-Stratton, 2000).

한편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양

육효능감과 부적상관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은 양육효능감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l, 1996; Kotchick, Forehand, Brody, Armistead, Simon, & Clark, 1997; 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 Scheel & Rieckmann, 1988). 그러나 아직까지 그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유아가 주 대상이기에 아동에 대한 연구가 드물며, 사회적 지원의 경우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Levi-Shiff et al., 1998)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의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자존감과 관련되고,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이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Coopersmith, 1967; Gecas & Schwalbe, 1986; Mondell & Tyler, 1981; Rogenberg, 1965). 그러나 양육행동, 특히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을 다룬 연구들 간의 상당한 불일치를 지적한 연구(박영애·정옥분, 1996)도 있어 이 둘 간의 관계 규명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 더구나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행동이 아니라 양육효능감이라는 연구결과(Ardelt & Eccles, 2001)에 의해 양육행동과 자존감의 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또한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보고들(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Gecas & Schwalbe, 1986; Steinberg & Silverberg, 1987)도 있어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성, 양육행동, 자존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Gecas & Schwalbe(1986)에 따르면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존감과 강한 정적 상관이 있기

는 하지만, 남아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 중 통제와 자존감이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여아의 경우는 부모의 지지와 양육에의 참여가 여아의 자존감과 강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부모들은 동성의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며(Steinberg & Silverberg, 1987), 동성 아동의 자존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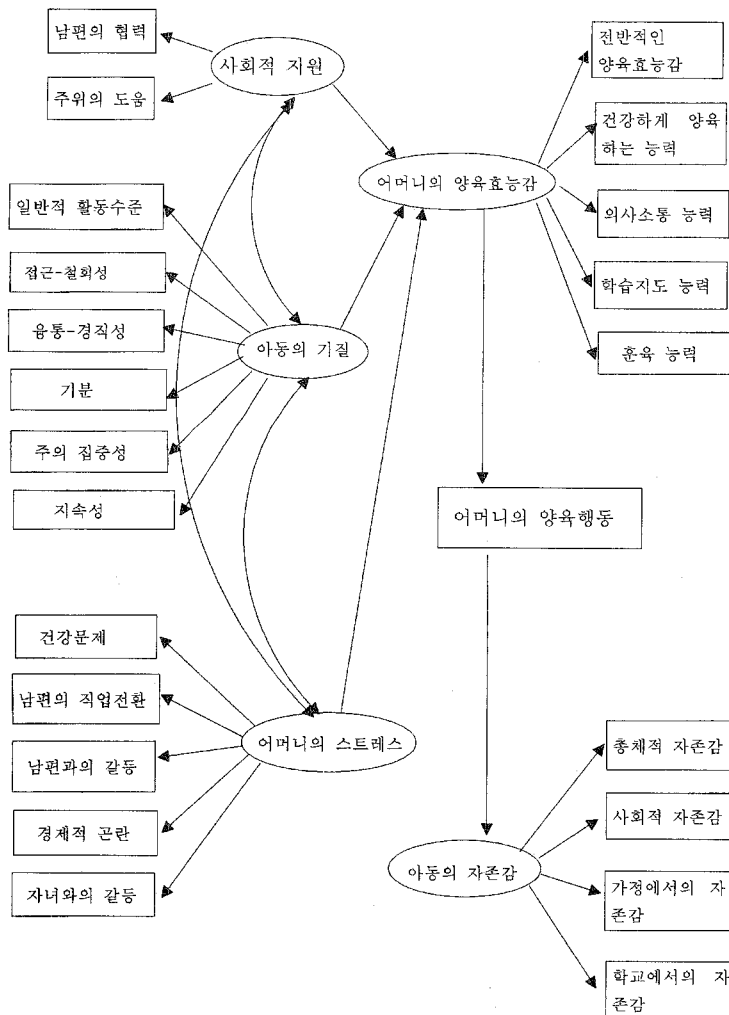
아동의 성은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며, 자녀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다(Rubin, Provenzano, & Luria, 1974). 신생아의 부모들조차 남아를 튼튼하고 단단한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여아를 작고 부드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아에게는 야망을 가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길 기대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매력적이고 상냥하길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성에 따른 기대와 인식의 차이는 남아에게 행위적, 도구적, 탐색적 활동을 강조하며 여아에 비해 훈육적인 양육행동을 더 행하게 하고, 여아에게는 대인관계에 민감하도록 강조하며 남아에 비해 한계설정적 양육행동을 더 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인지되고 있다(Block, 1983; Fristod & Karpowitz, 1988; Luster & Okagaki, 1993).

이러한 아동의 성은 양육의 제 요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여하는데, 남아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의 스트레스는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아 어머니의 경우 남아 어머니와 달리 배우자의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지지는 양육효능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자녀 간의 스트레스는 강력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연구가 드문 현실이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인종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Machida, Talyor, & Kim, 2002)와 아동의 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최형성, 2005) 등에 의해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데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그림 1>

과 같은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남아와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동 양육의 일차 책임자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점(Mash & Johnston, 1983 ; Elder, Eccles, Ardel, & Lord, 1995)과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아동에게 집중



<그림 1>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아동의 자존감 모형

되어 있다는 점(Desjardin, 2003)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과정과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남아와 여아 어머니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남아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여아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남아 188명, 여아 215명)과 그 어머니를 쌍으로 한 403쌍(806명)을 조사하였다. 남녀별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질문한 문항들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 범주는 남녀 모두에게서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은 11세(남아

의 46%, 여아의 45%)와 12세(남아의 35%, 여아의 37%)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남아의 49%, 여아의 60%)인 경우, 형제 수는 2명(남아의 74%, 여아의 6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6세에서 40세(남아 어머니의 51%, 여아 어머니의 59%)인 경우, 학력은 고졸(남아 어머니의 55%, 여아 어머니의 62%)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전업주부(남아 어머니의 60%, 여아 어머니의 50%)인 경우, 가정의 수입은 월 평균 200~249만원(남아 가정의 22%, 여아 가정의 24%)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7문항, 5개 하위요인(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높은 점수가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총 점수의 범위는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6, .74, .80, .80,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평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 중 ‘어머니는 나에게’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의 세 차원(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구성된 이 척도를 본 연구는 각 차원의 동일한 문항 수를 위하여 박영애(1995)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차원마다 요인 부

하량이 높은 12문항씩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각 차원별로 합산하여 사용되었고, 각 차원의 총 점수는 12점에서 48점까지이며, 역코딩함으로써 높은 점수가 해당 차원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높은 지각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이었으며 각 차원별 신뢰도는 .86, .80,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자존감

아동이 평가하는 아동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의 '아동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32문항, 4개 하위 요인(총체적인 자존감, 사회적인 자존감, 가정에서의 자존감, 학교에서의 자존감),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의 총 점수는 32점에서 160점까지이며, 높은 점수가 높은 자존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73, .85, .86,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현희(1994)의 '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한 후 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20문항, 5개 하위요인(건강문제, 남편의 직업전환,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곤란, 자녀와의 갈등), 4점 척도로 재구성된 본 척도의 총 점수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높은 점수가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8, .82, .82, .77,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숙재(1997)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25문항, 2개의 요인(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의 총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높은 점수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지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91,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아동의 기질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숙(1994)의 '기질 차원 척도'를 질문 문항의 첫 부분인 '나는'을 '내 아이는'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4문항, 6개 차원(일반적 활동 수준, 융통-경직성,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4점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의 총 점수는 34점에서 136점까지이다. 각 차원별 기질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 활동 수준, 융통-경직성의 점수가 낮을수록,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등의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활동수준과 융통-경직성 차원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함으로써 기질에 대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이었으며, 각 차원별 신뢰도는 .79, .68, .56, .79, .53,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연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있는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500명과 그 어머니 500명을 쌍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담임선생님을 통해 소정의 선물과 함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456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부실한 응답을 한 53쌍을 제외한 403쌍(806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AS PC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각 변인의 경향,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검증이 사용되었다. 스트레스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문항양호도 검사와 공통요인분석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요인타당도, 신뢰도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을 실시하였으며, 예비평가(왜도와 첨도) 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분석

1. 남아의 자존감과 관련변인 간의 구조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남아의 25개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 측정변인인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 간의 상관은 .50~.72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측정변인인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 간의 상관 역시 .37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기질에

<표 1> 남아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188)

| 측정 변인 | 측정변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 1.전반적인 양육효능감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 .72***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의사소통 능력 | .65*** | .6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4.학습지도 능력 | .70*** | .61*** | .53***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5.훈육능력 | .57*** | .60*** | .61*** | .5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 6.남편의 협력 | .49*** | .46*** | .46*** | .35*** | .43*** | 1.00 | | | | | | | | | | | | | | | | | | | | |
| | 7.주위의 도움 | .40*** | .44*** | .40*** | .40*** | .35*** | .37*** | 1.00 | | | | | | | | | | | | | | | | | | | |
| 아동의 기질 | 8.일반적 활동수준 | .11 | -.05 | .07 | .22** | .40 | -.01 | .10 | 1.00 | | | | | | | | | | | | | | | | | | |
| | 9.접근-회피성 | .24*** | .28*** | .22** | .17* | .20** | .29*** | .18* | -.23** | 1.00 | | | | | | | | | | | | | | | | | |
| | 10.융통-경직성 | .08 | .05 | .14 | .16* | .11 | .04 | .07 | .24** | .09 | 1.00 | | | | | | | | | | | | | | | | |
| | 11.기분 | .23** | .27*** | .28*** | .15* | .27*** | .34*** | .34*** | -.12 | .47*** | .13 | 1.00 | | | | | | | | | | | | | | | |
| | 12.주의 집중성 | .20** | .08 | .17* | .18* | .07 | .18* | .15* | .29*** | .03 | -.12 | -.02 | 1.00 | | | | | | | | | | | | | | |
| 어머니의 스트레스 | 13.지속성 | .14* | .06 | .06 | .16* | .04 | .10 | .11 | .20** | .12 | -.02 | .04 | .48*** | 1.00 | | | | | | | | | | | | | |
| | 14.건강문제 | -.16* | -.03 | -.20** | -.04 | -.10 | -.17* | -.06 | -.06 | -.07 | -.04 | -.09 | -.08 | -.06 | 1.00 | | | | | | | | | | | | |
| | 15.남편의 직업전환 | -.16* | -.02 | -.02** | -.04 | -.07 | -.27*** | -.15* | -.08 | -.10 | -.10 | -.13 | -.10 | -.02 | .66*** | 1.00 | | | | | | | | | | | |
| | 16.남편과의 갈등 | -.16* | -.07 | -.11 | -.11 | -.05 | -.18* | -.04 | .00 | -.06 | -.01 | -.14 | .04 | .05 | .59*** | .61*** | 1.00 | | | | | | | | | | |
| | 17.경제적 곤란 | -.21** | -.10 | -.13 | -.12 | -.12 | -.29*** | -.11 | -.11 | -.15* | -.12 | -.09 | -.17* | -.07 | .67*** | .61*** | .59*** | 1.00 | | | | | | | | | |
| 양육 행동 | 18.자녀와의 갈등 | -.22** | -.06 | -.23** | -.13 | -.08 | -.28*** | -.10 | -.20** | -.07 | -.07 | -.12 | -.20** | -.08 | .50*** | .54*** | .49*** | .53*** | 1.00 | | | | | | | | |
| | 19.온정·수용적 | .26*** | .25*** | .31*** | .22** | .31*** | .20** | .09 | -.03 | .04 | -.04 | .11 | .01 | -.09 | -.11 | -.11 | -.08 | -.11 | -.04 | 1.00 | | | | | | | |
| | 20.거부·제재적 | -.15* | -.10 | -.19** | -.17* | -.12 | -.02 | -.07 | -.17* | .03 | -.07 | -.06 | -.08 | -.14 | .10 | .06 | .04 | .06 | .09 | -.26*** | 1.00 | | | | | | |
| | 21.허용·방임적 | .02 | -.05 | -.05 | -.11 | .05 | .06 | .00 | -.12 | -.11 | -.10 | .07 | -.01 | -.05 | -.09 | -.02 | -.03 | -.02 | -.01 | .10 | .04 | 1.00 | | | | | |
| | 22.충체적 자존감 | .07 | .04 | .04 | .07 | .10 | .07 | .04 | -.03 | -.01 | .04 | .03 | -.09 | .02 | -.02 | -.10 | -.12 | -.04 | .09 | .29*** | -.18* | -.10 | 1.00 | | | | |
| 아동의 자존감 | 23.사회적 자존감 | .09 | .02 | .02 | .06 | .09 | .09 | .07 | .09 | .10 | -.04 | .09 | .02 | .09 | -.05 | -.10 | -.14 | -.10 | -.12 | .30*** | -.16* | -.01 | .62*** | 1.00 | | | |
| | 24.자정에서의 자존감 | .23** | .16* | .22** | .17* | .25*** | .20** | .09 | .08 | .02 | .05 | .09 | -.04 | .03 | -.09 | -.12 | -.11 | -.12 | -.04 | .49*** | -.37*** | -.06 | .65*** | .53*** | 1.00 | | |
| | 25.학교에서의 자존감 | -.07 | -.07 | -.03 | -.12 | -.11 | .00 | -.01 | -.15* | -.00 | -.09 | -.08 | -.04 | .02 | -.00 | -.04 | -.15* | -.04 | -.03 | .02 | .08 | -.23** | .34*** | .22** | .22** | 1.00 | |
| 평균 | | 3.62 | 3.90 | 3.85 | 3.49 | 3.97 | 3.85 | 3.76 | 2.47 | 2.85 | 2.92 | 3.15 | 2.35 | 2.57 | 1.87 | 2.10 | 1.72 | 2.01 | 2.35 | 2.23 | 1.17 | .94 | 3.73 | 3.30 | 3.92 | 3.35 | |
| 표준편차 | | .49 | .49 | .42 | .57 | .52 | .61 | .70 | .55 | .41 | .41 | .45 | .42 | .62 | .94 | .77 | .91 | .82 | .77 | .52 | .49 | .41 | .70 | .67 | .73 | .59 | |

대한 여섯 측정변인인 일반적 활동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간의 상관은 $-.23 \sim .48$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다섯 측정변인인 건강문제, 경제적 곤란, 남편의 직업 전환,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간의 상관은 $.50 \sim .67$ 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행동에 대한 세 측정변인인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간의 상관은 $-.26 \sim .0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네 측정변인인 총체적 자존감, 사회적 자존감, 가정에서의 자존감, 학교에서의 자존감 간의 상관은 $.22 \sim .6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인들과 최종 종속변인인 남아의 자존감과 매개적 역할을 하는 양육효능감에 대한 상관을 살펴보면, 남아의 자존감의 경우, 자존감에 대한 네 측정변인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는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는 대체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자존감 중 가정에서의 자존감은 양육효능감에 대한 다섯 측정변인들과 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협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에서의 자존감은 다른 자존감 측정 변인들의 경우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과의 상관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활동 수준과 남편과의 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경우, 양육효능감에 대한 다섯 측정변인들 모두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두 측정변인들, 기질의 측정 변인 중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존감 중 가정에서의 자존감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높은 정적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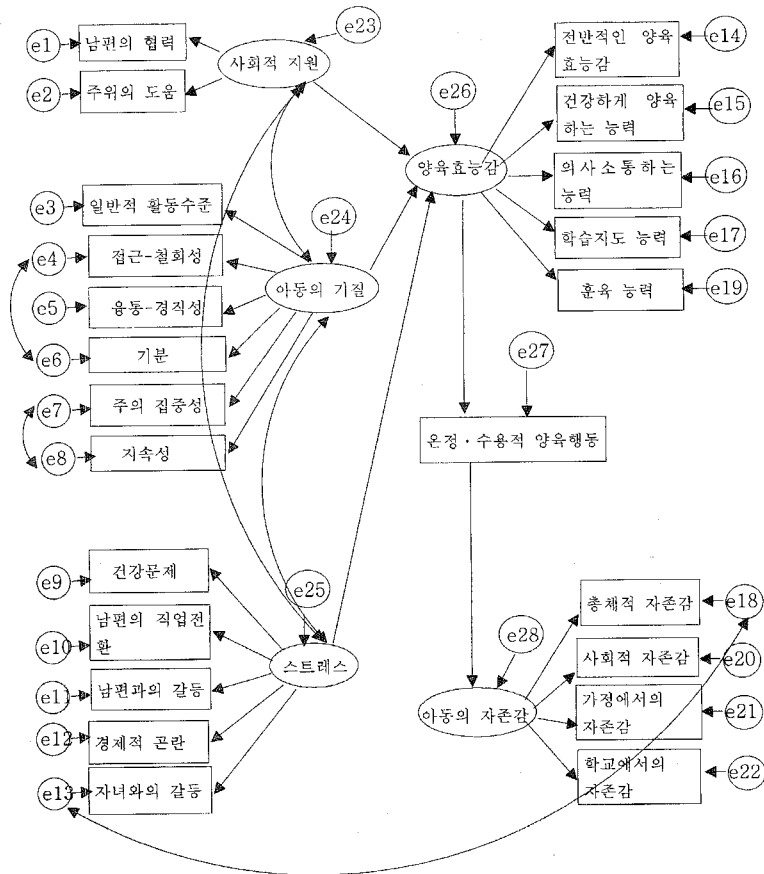
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다섯 측정변인들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와 부합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행동의 차원론적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합치도 지수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 중 가장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라는 견해가 강한 CFI, TLI, RMSEA에 근거하였다(홍세희, 2000). 카이스퀘어(χ^2)의 값은 모형의 적합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이기는 하지만, 표본의 크기와 모형 오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순목, 1990; 홍세희, 2000)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합치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CFI와 TLI는 .9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RMSEA의 경우 90% 신뢰구간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기본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합치도 지수에서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이 산출되었다(표 2).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의 기본 모형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기본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합치도 지수에 대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이 모형들의 수정지표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고려하여 하위 영역들의 오차 사이에 서로 간의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곳에 공분산 처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 양육행동 모형



<그림 2>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남아의 자존감 수정모형 I

모두 동일한 수정모형 I이 구축되었다(그림 2). 각 양육행동 차원의 수정모형 I의 중요 합치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각 양육행동 차원에 따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각 양육행동 수정모형 I의 분석결과 합치도 지수에서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산출하였다. 수정모형 I의 수정지표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일반적 활동수

<표 2> 남아 자존감 모형 합치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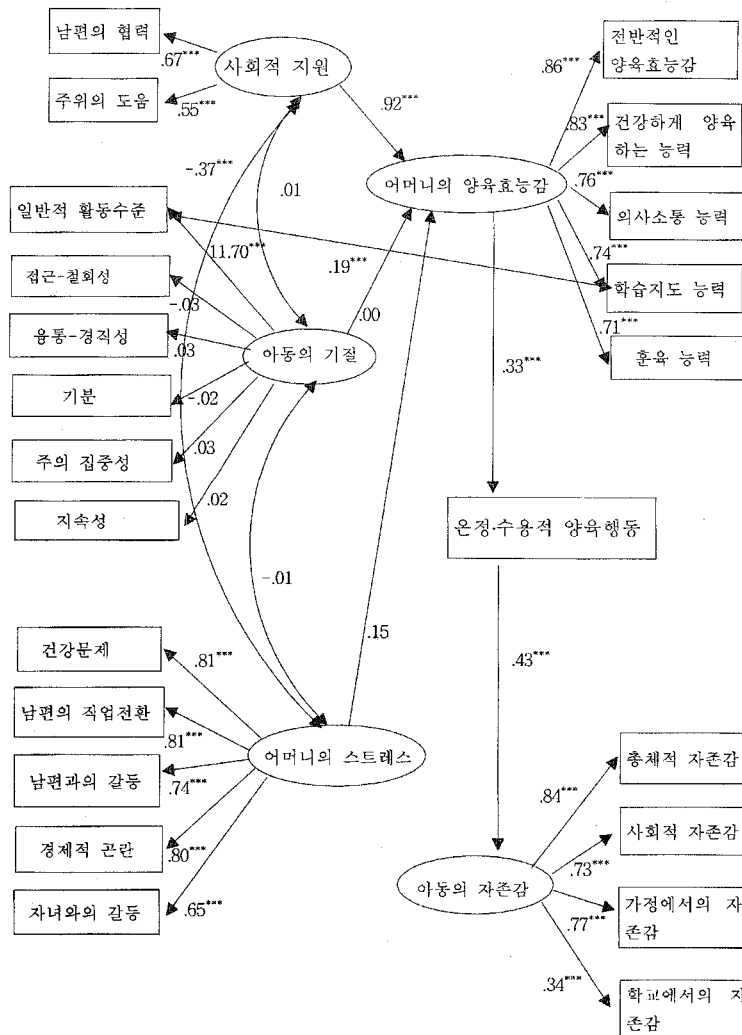
| | | CFI | TLI | RMSEA(LO 90 HI 90) |
|-------------|---------|------|------|--------------------|
| 애정·수용적 양육행동 | 기본모형 | .849 | .866 | .071(.061 .081) |
| | 수정모형 I | .923 | .933 | .050(.038 .062) |
| | 수정모형 II | .931 | .940 | .048(.035 .059) |
|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기본모형 | .844 | .862 | .071(.061 .081) |
| | 수정모형 I | .922 | .933 | .050(.038 .061) |
| | 수정모형 II | .931 | .940 | .047(.034 .059) |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 기본모형 | .838 | .858 | .072(.062 .082) |
| | 수정모형 I | .918 | .929 | .051(.039 .063) |
| | 수정모형 II | .926 | .936 | .049(.036 .060) |

준이 학습지도 능력에,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일반적 활동 수준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양육효능감이 가정에서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각 양육행동 차원에 따른 수정모형Ⅱ를 구축하였다.

각 양육행동의 수정모형Ⅱ의 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보듯이 각 양육행동 차원 모형들의 CFI와 TLI는 .9 이상이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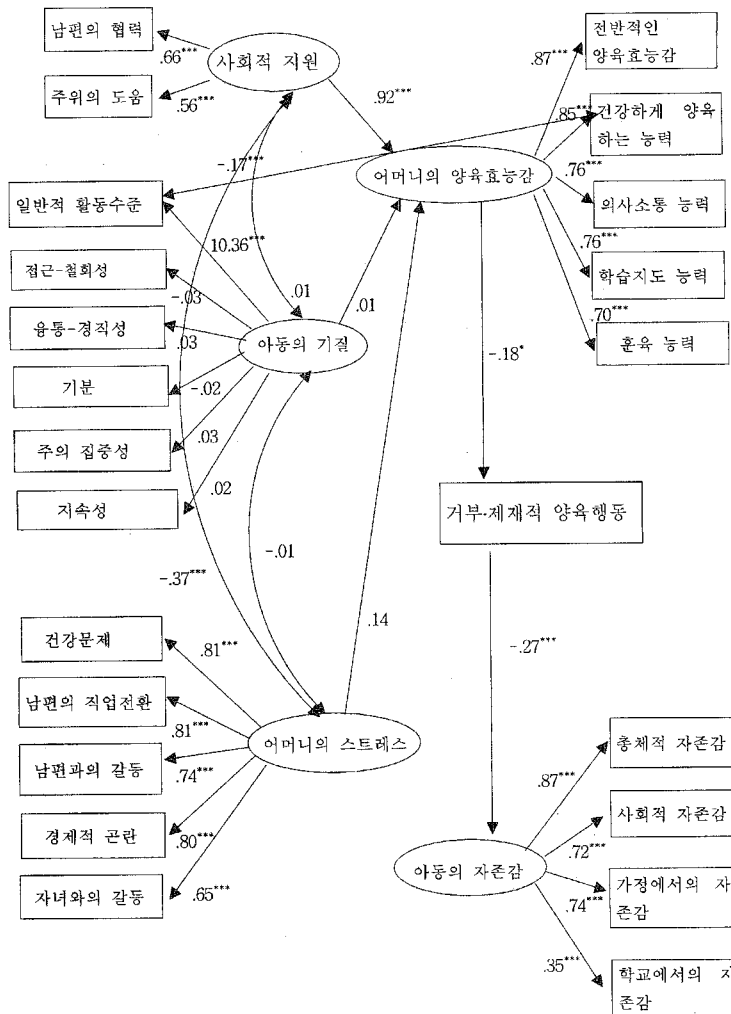
며, RMSEA는 넓지 않은 90% 신뢰구간도에서 .05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합치도 지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자존감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수정모형Ⅱ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각 변인들의 설명력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남아의 자존감 :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수정모형Ⅱ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남아의 자존감 :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수정모형 II 경로계수

의 경우 18%,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7%,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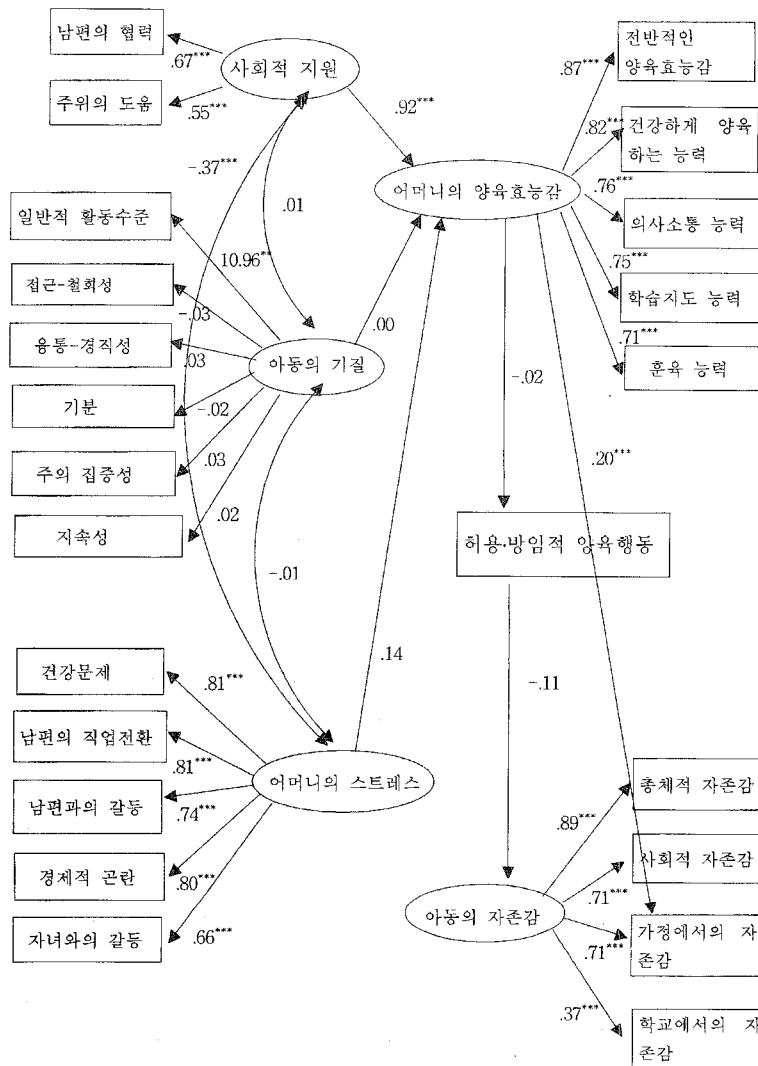
2. 여아의 자존감과 관련변인 간의 구조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 2>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여아의 25개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

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은 .54~.76으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측정변인인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 간의 상관은 .46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기질에 대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은 -.29~.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은 .51~.64로 매우 높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남아의 자존감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수정모형 II 경로계수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은 $-.35 \sim .2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은 $-.03 \sim .6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인들과 최종 종속변인인 여아의 자존감과 매개적 역할을 하는 양육효능감에 대한 상관을 살펴보면, 여아의 자존감의 경우, 아동의 자존감 측정 변인 중 총체적 자존감, 사회적 자존

감, 가정에서의 자존감은 대체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교에서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세 측정 변인과의 상관의 방향이 나머지 자존감 측정 변인들과는 모두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인 자존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 변인 모두와 기분, 지속성과 유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 측정변인 대부분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존감은 전반적인 양육 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훈육 능력,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 변인 모두와 남편의 협력, 기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에서의 자존감은 남아의 경우와 비슷하게 다른 자존감 측정 변인들의 경우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 간의 상관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 측정 변인 모두와 남편의 협력, 융통-경직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경우, 양육효능감에 대한 다섯

측정변인들 모두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협력, 기질의 측정 변인 중 접근-철회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존감 중 총체적 자존감, 사회적 자존감, 가정에서의 자존감과 전반적으로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다섯 측정변인들과는 대체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학교에서의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와 부합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구

〈표 3〉 여아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215)

| 측정 변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 1. 전범위한 양육효능감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 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 .76***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의사소통 능력 | .76*** | .7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4. 학습지도 능력 | .68*** | .59*** | .64***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5. 훈육능력 | .60*** | .55*** | .59*** | .54*** | 1.00 | | | | | | | | | | | | | | | | | | | | |
|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 6. 남편의 협력 | .65*** | .59*** | .65*** | .53*** | .52*** | 1.00 | | | | | | | | | | | | | | | | | | | |
| | 7. 주위의 도움 | .40*** | .44*** | .48*** | .46*** | .40*** | .46*** | 1.00 | | | | | | | | | | | | | | | | | | |
| 아동의 기질 | 8. 일반적 활동수준 | .05 | .03 | .07 | .13* | .06 | .04 | .00 | 1.00 | | | | | | | | | | | | | | | | | |
| | 9. 접근-철회성 | .20** | .22*** | .23*** | .17* | .21** | .25*** | .25*** | -.29*** | 1.00 | | | | | | | | | | | | | | | | |
| | 10. 융통-경직성 | .13 | .17* | .10 | .13 | .07 | .12 | .13 | .18** | .22*** | 1.00 | | | | | | | | | | | | | | | |
| | 11. 기분 | .20** | .21** | .27*** | .27*** | .28*** | .30*** | .32*** | -.06 | .49*** | .24*** | 1.00 | | | | | | | | | | | | | | |
| | 12. 주의 집중성 | .22** | .16* | .19** | .16* | .05 | .22** | .09 | .27*** | -.07 | -.02 | .07 | 1.00 | | | | | | | | | | | | | |
| | 13. 지속성 | .18** | .13 | .25*** | .16* | .11 | .24*** | .08 | .27*** | .07 | .05 | .21** | .66*** | 1.00 | | | | | | | | | | | | |
| 어머니의 스트레스 | 14. 건강문제 | -.11 | -.13 | -.05 | -.08 | -.07 | -.10 | -.01 | -.03 | -.09 | -.06 | -.07 | .02 | -.06 | 1.00 | | | | | | | | | | | |
| | 15. 남편의 직업전환 | -.17* | -.16* | -.12 | -.08 | -.10 | -.14* | -.07 | -.04 | -.06 | -.21* | -.01 | -.04 | -.06 | .58*** | 1.00 | | | | | | | | | | |
| | 16. 남편과의 갈등 | -.15* | -.16* | -.08 | -.07 | -.05 | -.22*** | -.11 | .03 | -.09 | -.11 | -.07 | -.07 | -.05 | .62*** | .60*** | 1.00 | | | | | | | | | |
| | 17. 경제적 곤란 | -.23*** | -.19** | -.15* | -.13 | -.14* | -.31*** | -.15* | -.03 | -.06 | -.22** | -.17* | -.07 | -.09 | .61*** | .58*** | .64*** | 1.00 | | | | | | | | |
| | 18. 자녀와의 갈등 | -.30*** | -.27*** | -.26*** | -.21** | -.20** | -.32*** | -.14* | -.07 | -.07 | -.22*** | -.08 | -.16* | -.21** | .59*** | .54*** | .52*** | .51*** | 1.00 | | | | | | | |
| 양육 행동 | 19. 온정·수용적 | .29*** | .33*** | .27*** | .21** | .26*** | .25*** | .07 | -.02 | .04 | .04 | .15* | .07 | .03 | -.09 | -.13 | -.08 | -.15* | -.18** | 1.00 | | | | | | |
| | 20. 거부·제재적 | -.14* | -.20** | -.15* | -.07 | -.08 | -.14* | -.06 | -.03 | .02 | -.13 | -.11 | -.10 | -.09 | .02 | .12 | .04 | .03 | .07 | -.35*** | 1.00 | | | | | |
| | 21. 허용·방임적 | .17* | .20** | .23*** | .19** | .18** | .15* | -.09 | -.14* | .21** | -.06 | -.23*** | -.11 | -.25*** | .06 | .10 | .06 | .11 | .10 | -.04 | .22** | 1.00 | | | | |
| 아동의 자존감 | 22. 총체적 자존감 | .18** | .14* | .18** | .14* | .14* | .13 | .01 | .13 | .08 | .12 | .15* | .17* | .20** | -.06 | .02 | -.04 | -.02 | -.18** | .25*** | .11 | -.09 | 1.00 | | | |
| | 23. 사회적 자존감 | .21** | .12 | .16* | .12 | .15* | .10 | -.01 | .01 | .21** | .16* | .14* | .06 | .05 | -.05 | .03 | -.01 | -.08 | -.13 | .18** | -.05 | .01 | .53*** | 1.00 | | |
| | 24. 가정에서의 자존감 | .20** | .20** | .25*** | .15* | .17* | .18** | .04 | .08 | .10 | .06 | .18** | .05 | .03 | -.03 | .00 | .00 | -.05 | -.13 | .43*** | -.20** | -.19** | .69*** | .43*** | 1.00 | |
| | 25. 학교에서의 자존감 | -.17* | -.14* | -.15* | -.14* | -.14* | -.14* | -.13 | -.12 | .10 | -.05 | -.06 | -.13** | -.12 | -.07 | -.02 | -.05 | .01 | -.00 | -.18** | .31*** | .23*** | -.00 | -.02 | -.03 | 1.00 |
| 평균 | | 3.60 | 3.81 | 3.86 | 3.44 | 3.99 | 3.73 | 3.52 | 2.56 | 2.85 | 2.93 | 3.17 | 2.40 | 2.57 | 1.93 | 2.23 | 1.81 | 2.16 | 2.43 | 2.26 | .99 | 1.00 | 3.68 | 3.41 | 3.89 | 3.28 |
| 표준편차 | | .54 | .53 | .51 | .61 | .57 | .68 | .76 | .51 | .47 | .41 | .47 | .45 | .62 | .92 | .77 | .86 | .83 | .73 | .50 | .53 | .41 | .71 | .70 | .81 |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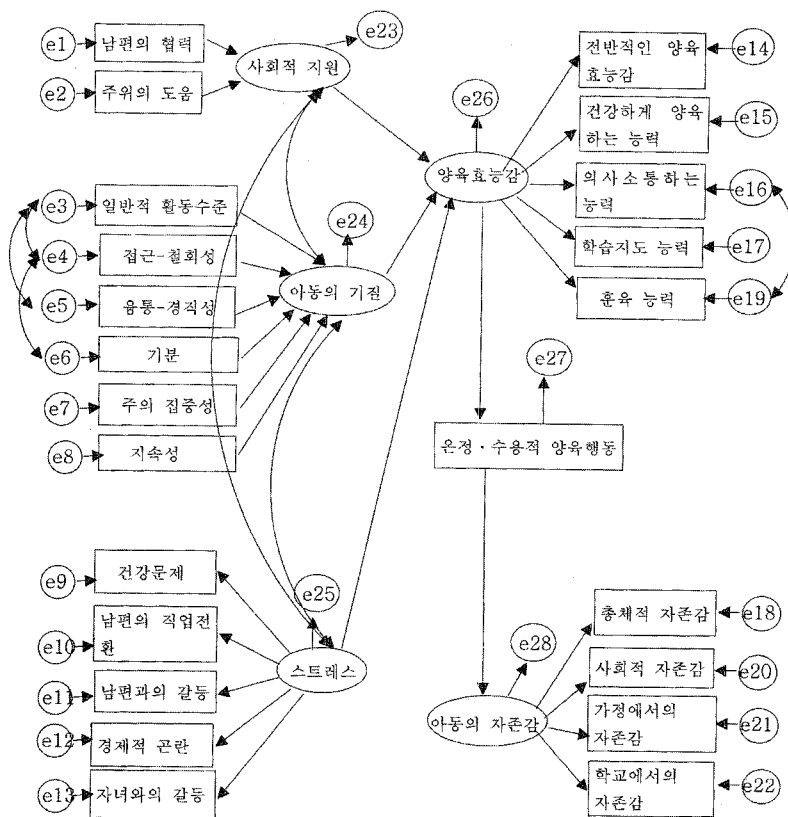
〈표 4〉 여아 자존감 모형 합치도 지수

| | | CFI | TLI | RMSEA(LO 90 HI 90) |
|-------------|---------|------|------|--------------------|
| 애정·수용적 양육행동 | 기본모형 | .867 | .882 | .070(.061 .080) |
| | 수정모형 I | .920 | .930 | .055(.044 .065) |
| | 수정모형 II | .937 | .946 | .049(.037 .059) |
|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 기본모형 | .865 | .881 | .070(.061 .080) |
| | 수정모형 I | .923 | .934 | .053(.043 .0563) |
| | 수정모형 II | .935 | .944 | .049(.038 .059) |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 기본모형 | .860 | .877 | .072(.063 .081) |
| | 수정모형 I | .916 | .923 | .056(.045 .066) |
| | 수정모형 II | .933 | .943 | .050(.039 .0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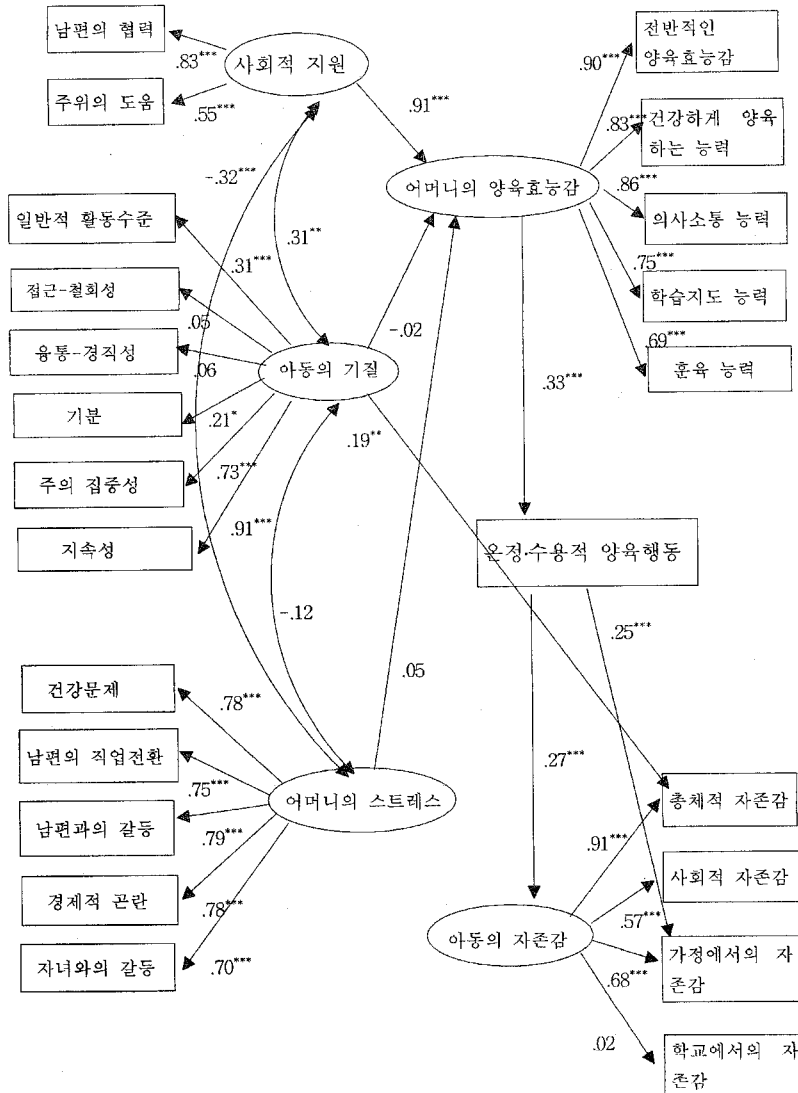
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행동의 차원론적 입장, 최대우도법, CFI, TLI, RMSEA에 근거한 합치도 지수 사용 방식을 취하였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기본 모형과 거부·

제재적 양육행동의 기본 모형,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기본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합치도 지수에 대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이 모형들의 수정지표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하위 영역들의 오



〈그림 6〉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여아의 자존감 수정모형 I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7>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여아의 자존감 :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수정모형 II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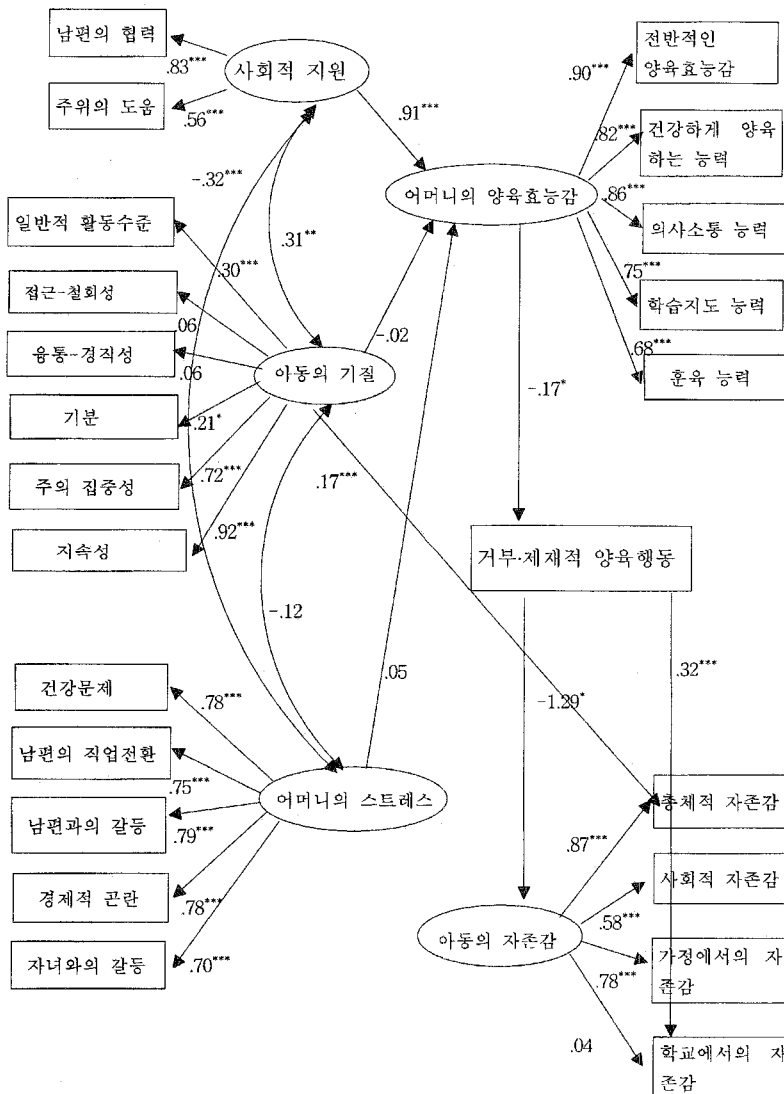
차 사이에 서로 간의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곳에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고려하여 공분산 처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 양육행동 모형 모두 동일한 수정모형 I 이 구축되었다(그림 6). 각 양육행동 차원 수정모형 I 의 중요 합치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각 양육행동 차원에 따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각 양육행동 수정모형 I 의 분석결과 합치도 지수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토대로 수정지표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은 아동의 기질이 총체적 자존감에 그리고 양육행동이 가정에서의 자존감에,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은 아동의 기질

이 총체적 자존감에 그리고 양육행동이 학교에서의 자존감에,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은 아동의 기질이 총체적 자존감에, 양육행동이 학교에서의 자존감에,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가정에서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각 양육행동 차원에 따른 각각의 수정모형 II를 구축

하였다.

각 양육행동 수정모형 II의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보듯이 각 양육행동 차원의 수정모형 II들의 CFI와 TLI는 .9이상이었으며, RMSEA는 넓지 않은 90% 신뢰구간에서 .05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합치도 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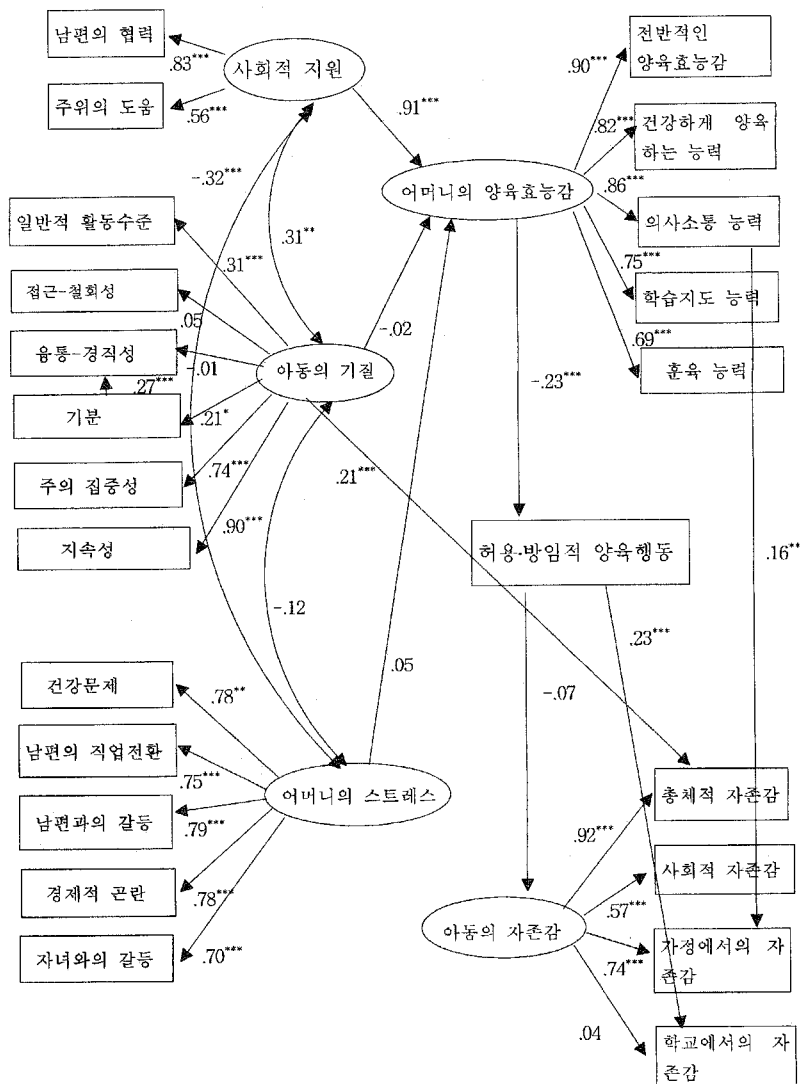
<그림 8>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여아의 자존감 :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수정모형 II 경로계수

여아 자존감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수정모형 II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7>, <그림 8>, <그림 9>에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 본 결과 여아 자존감에 대한 모든 변인들의 설명력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경우 16%,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의 경우 2%,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 1%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9>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여아의 자존감 :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수정모형 II 경로계수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과정과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남아와 여아 어머니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많아지고,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은 두 양육행동 모형에서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기질의 측정 변인 중 하나인 일반적 활동수준이 양육효능감 측정 변인 중 하나인 학습지도 능력에,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일반적 활동수준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양육의 제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다른 두 모형들과 같았으나, 두 모형들과 달리 아동의 기질 측정 변인 중 일부라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정에서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양육행동

을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아동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의 관계를 아동의 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변인들 간의 하위영역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비록 남아와 여아를 구분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하위영역별 관계를 살펴보지 않았던 연구일지라도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라면 본 연구의 결과와의 비교와 논의에 활용하였다.

남아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을 매개하고 아동의 기질 중 일부 변인일지라도 기질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Coleman & Karraker, 1997; Cutrona & Troutman, 1986; Donovan & Leavitt, 1985; Machida, Talyor, & Kim, 2002; Teti & Gelfand, 1991)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Leerkes & Crokenberg(2002), Levy-Shiff와 동료들(1988)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트레스 변인이 양육에 한정된 스트레스가 아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인종(Elder, Eccles, Ardel, & Lord, 1995)과 부모의 연령(Shapiro & Mangelsdorf, 1994)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및 부모의 연령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남아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가정에서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기보다는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기질과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Coleman & Karraker, 1997; Cutrona & Troutman, 1986; Donovan & Leavitt, 1985; Machida, Talyor, & Kim, 2002; Teti & Gelfand, 199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Coleman & Karraker(1997), Gecas & Schwalbe (1986), Gondoli & Silverberg(1997), Desjardin (2003) 등의 연구 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효능감을 예측케하는 것은 양육행동이 아니라 양육효능감이었다는 Ardeli & Eccles(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남아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다른 두 양육행동 모형과 일치하지 않는 양육효능감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여아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에 대한 논의부분에서 함께 다루겠다.

둘째, 여아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며, 양육효능

감이 높을수록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많아지고,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와 달리 여아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가정에서 자존감에도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은 양육행동이 학교에서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기질은 두 양육행동 모형 모두에서 아동의 총체적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다른 두 양육행동 모형과 유사하였고,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존감 중 학교에서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이나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동의 기질은 총체적인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 중 의사소통 능력은 가정에서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세 차원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양육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 (Cutrona & Troutman, 1986; Donovan & Leavitt, 1985; Teti & Gelfand, 1991)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Leerkes & Crokenberg(2002), Levy-Shiff와 동료들(1988)의 연구결과와 아동의 기질에 대한 Coleman & Karraker(1997), Cutrona & Troutman (1986), Machida와 동료들(2002)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여아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남아 어머니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여아의 기질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다만, 여아의 경우 남아와는 달리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정서적 능력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우수경·최기영(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기질적 측면이 발달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여아의 기질이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더 강력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여아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두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와 달리 양육효능감 중 의사소통 능력이 아동의 가정에서의 자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도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양육효능감이 가정에서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행동이 아니라 양육효능감이었다는 Ardelt & Eccles(2001)의 결과로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간의 관계에 양육효능감을 추가함으로써 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가능성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박영애·정옥분, 1996; 이숙·최정미, 2003; Anderson & Hughes, 1989; Litovisky & Duset, 1985)에서 언급된 두 변인관계에 대한 불일치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아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에서 양육행동이 여아의 학교에서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모의 통제와 허용이 아동의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경연, 1993; Anderson & Hughes, 1989; Kawash, Kerr, & Clewes, 198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여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김문혜·강문희, 1999; Richard, Gitelson, Peterson, & Hurting, 1991)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장해정, 2003)에 의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에서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제까지 아동의 자존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의 하위영역별 분석에 대한 것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아동의 성에 따른 비교는 더욱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남아 어머니와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양육행동을 통한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모형에서, 특히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모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남녀아 모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모형의 경우 양육효능감은 양육의 제 변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즉 양육효능감의 또 다른 매개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남아와 여아의 모형을 비교하여 볼 때 남아에 비해 여아의 모형이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행동이 다르며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Gecas & Schwalbe(1986)의 연구, 부모는 동성의 자녀에게 애정적이며 아동의 성에 따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Bogenschneider와 동료들(1977), Steinberg & Silverberg(1987)의 연구, 여아의 기질적인 측면이 남아에 비해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우수영과 최기영(2002)의 연구 등을 통해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 연구와 직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

에서 그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연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 하겠다. 다만 아동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하였을 때(최형성, 2006)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남아와 여아 모형의 차이점과 그 차이로 인해 남아와 여아의 양육과 아동발달의 과정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차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과 아동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주목받게 될 변인이다(Coleman & Karraker, 1997; Johnson & Mash, 1989). 양육효능감이 양육의 제 변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동시에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발달에 기여하며, 아동의 성에 따라 그 영향과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그 경로가 좀 더 복잡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아동의 성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큰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 그리고 제한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양육효능감을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히 아동의 성차에 따른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양육은 부모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차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으나 차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각 연령대별로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차후에는 장애아, 자폐아, 비행아 등 다양한 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에게 발달 상황에 적절한 각각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연(1993).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1), 37-50.
- 김문혜 · 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20(4), 195-211.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 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321-340.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우수영 · 최기영(2002).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3(6), 15-32.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 ·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2.
-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 성원사.
- 장혜정(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12(2), 73-87.
- 진현희(1994).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와 정서적 아동학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보가 · 전기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3.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 최형성(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4(11), 79-89.
- 최형성 ·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홍세희(2000). 특별기고 :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1), 161-177.
- Anderson, M., & Hughes, H. M. (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465.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Block, J. H. (1983). Differences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 (197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Brody, G. H., Flor,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sjardin, J. L. (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 Donovan, W. L., & Leavitt, L. A. (1985). Simulating conditions of learned helplessness :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and at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6*, 594-603.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ccles, J., & Harold, R. (1996). Parent-school involve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 *Teachers College Record, 94*, 568-587.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Fristod, M. A., & Karpowits, D. H. (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modified form. *Psychological Reports, 62*, 665-666.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37-46.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Hoover-Dempsey, K., Bassler, O., & Brissie, J. (1992). Explorations in parent-schoo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Review, 85*, 287-294.
- Hoover-Dempsey, K., & Sandler, H. (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 3-42.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97-175.
- Kawash, G. F., Kerr, E. N., & Clewes, J. L. (1985). Self-esteem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 235-242.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 (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eerkes, E. M., & Cro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Litovsky, V. G., & Dusek, J. B. (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4*, 373-388.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 on parenting : ecological and life 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pp.227-250). Hillsdale NJ : Erlbaum.
- Machida, S., Talyor, A. R., & Kim, J. (2002) The role of maternal beliefs in predicting home learning activities in Head Start families. *Family Relations*, 51(2), 176-184.
- Martin, A. J., & Sanders, M. S. (2003). Balancing work and family :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work-site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ume*, 8(4), 161-169.
-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Richard, M. H., Gitelson, I. B., Peterson, A. C., & Hurtin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ubin, J. S., Provenzano, F. J., & Luria, Z. (1974). The eye of the beholder : parents' views on sex of newbor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 353-363.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 (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6), 621-641.
-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7).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51-760.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bster-Stratton, C. (2000). *The incredible years training series*. Juvenile justice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ne, 2000.

2007년 2월 28일 투고 : 2007년 5월 14일 채택